‘전주를 성화의 불꽃으로’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 · 이동국, 오늘 평창 올림픽 성화 봉송

전북 현대의 2017시즌 K리그 클래식 우승을 합작한 최강희 감독과 이동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의 열기를 잇는다.

최 감독과 이동국은 오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 봉송주자로 전주를 성화의 불꽃으로 밝힌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현대자동차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콘셉트로 내세운 ‘드리머 & 어치버(Dreamer & Achiever)’의 인물로 뽑은 192명 중 전주 지역의 스페셜 ‘어치버’로서 최 감독과 이동국을 추천하며 성사됐다.

현대자동차는 최 감독과 이동국 선수가 ‘영혼의 사제’로 불릴 만큼 환상의 호흡으로 스포츠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성화 봉송주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최 감독은 “K리그 우승의 기원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다”며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에서 동계올림픽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현대자동차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콘셉트로 내세운 ‘드리머 & 어치버(Dreamer & Achiever)’의 인물로 뽑은 192명 중 전주 지역의 스페셜 ‘어치버’로서 최강희 감독과 이동국을 추천했다.

이동국은 “올림픽 성화봉송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전북 현대와 전라북도 도민을 대표해 올림픽 성공에 대한 염원을 성화에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손흥민, AFC 올해의 해외파 선수상 수상

이승우, 올해의 남자 유망주 선수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핫스퍼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해외파 선수상을 거머쥐었다.

손흥민은 29일(한국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17 AFC 어워즈에서 올해의 해외파 선수상을 받았다.

호주 출신 애런 무이(허더즈필드), 이웃나라 일본의 가가와 신지(도르트문트)와 최종 후보 3인으로 등재된 손흥민은 두 선수를 제치고 수상자로 결정됐다.

올해의 해외파 선수상은 지난 2012년 제정됐다. 유럽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해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AFC가 대안으로 신설했다.

손흥민은 2016~2017시즌 EPL 아시아인 최다골을 돌파하면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우(베로나)는 올해의 남자 유망주 선수상를 거머쥐었다.

올해의 선수상은 오마르 크리빈(시리아)이 차지했다.

올해의 코치상에는 J리그 우라와 레즈를 아시아 정상으로 이끈 호리 다카후미(일본)가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KBO, 보류선수 538명 공시… 정성훈 · 니퍼트 제외

KBO가 올 시즌 KBO 리그에 등록된 선수 중 내년도 재계약 대상인 보류선수 538명을 지난 30일 공시했다.

올 시즌 KBO 리그에 등록된 선수는 총 670명이다.

이 가운데 시즌 중 임의탈퇴 및 자유계약선수 28명, 군보류선수 13명, FA 미계약 선수 13명이 소속선수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지난 25일 각 구단이 제출한 보류선수 명단에서 79명이 추가로 제외됐고, 미계약 보류선수 1명을 포함해 최종 538명이 2018년 보류선수로 공시됐다.

각 구단별 보류선수는 통합 우승을 달성한 KIA가 63명으로 가장 많다.

2018년 구단별 보류선수 명단 제외 선수

구단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인원합
KIA	김광수, 배힘찬				2
두산	고창준, 김성배, 안규영, 이용호, 조승수, 진야곱, 홍영현, 니퍼트, 보우덴		정진철, 에반스		11
롯데	강영식, 김영일, 이재곤, 장지원		박종윤	김주현, 김민하	7
NC	박민석, 맨쉽, 해커	박세웅, 김태우	이호준, 조영훈	김종호	8
SK	이정담, 임치영, 다이아몬드	허웅		박재상	5
LG	송은주, 신승현, 유경국, 이동호, 정찬웅		오상연, 정성훈, 함욱치승		8
kt	김공한, 김홍민, 박승주, 박홍웅, 안정호, 양홍유재훈, 정종주, 함국군, 벤헤켄		박윤	김민준	12
한화	장지훈, 오간도, 비야누에바	차일목		정현석, 김경언, 김원석	7
삼성	김한우, 박민규, 레나도, 웨트락	최경철	김정혁, 이승엽, 성의준	우동균, 문선엽, 나성범	11
KT	채선관, 최원재	윤요섭	김준은, 김연훈, 신현철, 안정광	이상훈	8
	45	6	16	12	79명

롯데 59명, SK 57명, 한화 56명, NC와 삼성이 각각 53명, LG와 kt가 각각 51명, 두산 50명, 넥센 45명이다.

넥센은 총 12명의 선수를 보류선수 제외 선수로 정했다.

두산과 삼성은 각각 11명의 선수를 제외했다.

LG는 논란을 불러온 내야수 정성훈을 비롯해 8명, NC와 kt도 8명씩을 정리했다.

롯데와 한화도 베테랑 선수들을 중심으로 7명씩을 보류선수에서 제외했다.

SK는 외야수 박재상 등 5명, KIA는 투수 김광수, 배힘찬 2명의 선수만을 방출했다.

장기간 KBO리그에서 활약한 두산 더스틴 니퍼트(37)와 NC 에릭 해커(34), 넥센 벤헤켄(38) 등도 다른 구단 또는 다른 리그를 알아봐야할 처지가 됐다.

/뉴시스

레일리 · 번즈, 내년에도 롯데 자이언츠

레일리 · 번즈 각각 117만 · 73만 달러에 사인

브룩스 레일리(왼쪽)와 앤디 번즈

롯데가 동고동락한 외국인 선수들과 내년 시즌에도 한 배를 탄다.롯데 자이언츠는 30일 “외국인 투수 브룩스 레일리, 내야수 앤디 번즈와 2018시즌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레일리(29)는 올 시즌보다 37.6% 인상된 총액 117만 달러에 계약하며 4년 연속 롯데와 함께 하게 됐다.

레일리는 2015년 KBO리그에 데뷔해 통산 92경기에 출전, 551⅓이닝을 소화하며 32승 26패 평균자책점 4.02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30경기에 나와 187⅓이닝을 소화하며 13승 7패 평균자책점 3.80의 성적을 남겼다.

후반기에 10연승을 거두는 등 빼어난 활약을 거두며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에 큰 구실을 했다.

레일리는 “롯데에서 네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 올해 우리는 멋진 시즌을 보냈고 팬들이 보내준 성원을 잊을 수 없다”며 “2018시즌 우승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번즈(27)도 12.3% 인상된 총액 73만 달러에 사인하며 롯데와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번즈는 올 시즌 116경기에 출장해 타율 0.303(423타수 128안타) 15홈런 57타점 71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60을 기록했다.

주로 2루수로 출장한 번즈는 뛰어난 순발력을 바탕으로 한 견고한 수비로 내야에 안정감을 제공했다.

번즈는 “다음 시즌에도 롯데에서 뛸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고 행복하다. 우리 팀은 정말 멋진 팀이며 최고의 팬과 함께 하고 있다”며 “내년 시즌에는 우승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CJ E&M 미국판 ‘꽃할배’ 시즌2, 내년 1월 NBC 방송

미국판 ‘꽃보다 할배’ 시즌2가 미국 NBC 방송된다.

30일 CJ E&M에 따르면, ‘꽃보다 할배’의 미국 버전인 ‘베터 레이트 댄 네버’(Better Late Than Never)는 내년 1월1일부터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미국 시청자를 만난다.

출연진은 1970년대 시트콤 ‘해피 데이즈’의 헨리 윙클러, ‘스타트랙’에서 커크 선장 역을 맡았던 윌리엄 샤트너, 폭스(FOX) 방송의 ‘NFL 선데이’를 진행하는 전직 미식축구 선수 테리 브래드쇼, 세계 헤비급 챔피언 출신 복서 조지 포먼 등이다.

한국판에서 배우 이서진의 몫이었던 짐꾼 역할은 코미디언 제프 다이가 맡는다.

이번 시즌에서 ‘미국 할배’들은 독일 · 리투아니아 · 스웨덴 · 스페인 · 모로코 등 5개국에서 7개 도시를 여행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팝 그룹 ‘아바’의 멤버 비에른 울바에우스, 유명 배우 데이비드 해셀호프 등의 깜짝 출연도 예고돼 있다.

CJ E&M은 “미국판 ‘꽃보다 할배’ 시즌 1 첫 방송은 미국 4대 메이저 방송사 포함, 전 채널 같은 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등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다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